"사찰벽화 단청 현대미 살려요"

'불교미술연구소' 나서

교수들 동참 창의력 돋보여 심우도엔 티셔츠 소년 등장

◇수인(手印)과 꽃이 소재인 홍은사 설법전 벽화. 김근중교수作.

◇홍은사 벽화의 '심우도'. 티셔츠와 운동화를 신은 소년이 이채롭다. 손연칠교수作.

새로 지은 사찰에 가보더라도 대부분 벽화나 단청이 천편일률적으로 비슷비슷하다. 소재나 문양, 기법에 있어 새로운 시도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직 미술과 교수들이 중심이 된 불교미술연구소(소장 손연칠)가 '불교미술의 찬란했던 과거의 전통이 이 시대의 현대성과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창조적 전통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 시대 불교미술계의 과제'라는 취지로 단청과 벽화의 현대화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불교미술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최근 신축건물인 안동 홍은사(창건주 손현수)의 벽화와 단청을 현대적 감각의 문양과 그림으로 장엄했다.

홍은사의 벽화는 기존 사찰벽화에서 많이 그려진 팔상도 대신에 수인(手印)과 꽃, 절 주위의 풍경을 그린 동양화로 장식됐다. 심우도도 옛 그림이 아니라 티셔츠와 바지 그리고 운동화를 신은 친근한 이웃집 소년의 모습으로 과감한 변화를 시도했다. 또 대웅전, 설법전 등의 단청은 고풍스런 옛 문양이 아니라 만다라화를 간결하면서도 감각적인 문양과 색으로써 창의력을 살리고 있다.

연구소는 홍은사 외에도 동국대 대각전, 순천 금둔사 등의 벽화와 단청에 변화를 시도했으며 현재 청도 대응사의 단청과 벽화를 작업중이다. 이러한 작업에는 손연칠(동국대 미술학, 문화재전문위원) 김근중(경원대 미술학), 김선두(중앙대 미술학) 김봉열(한국종합예술대 건축학, 문화재전문위원) 홍광표(동국대 조경학)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손연칠 교수는 "창작과 실험정신이 없이 옛 것만을 답습하는 한 불교미술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며 "현대인의 감각에 맞는 새로운 창작예술작품을 통해 부처님의 정신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교미술연구소 (02)285-2369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혜철 · 재신스님의 재소자 포교담

불교TV 제헌절특집 '작은 깨달음…' 방영

불교TV는 10여년동안 재소자 포교에 힘써온 혜철스님(불교사회교화복지선도회 이사장)과 비구니 재신스님(신촌 봉원사) 등을 집중 조명한 다큐멘터리 '작은 깨달음, 그 자유를 찾아'(담당PD 강용호)를 17일 오전 11시10분부터 12시까지 50분간 방영한다.

제헌절을 맞아 법준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기행형식으로 기획된 이번 프로그램은 청송 제2감호소 재소자 수계법회, 재소자들과의 신행상담, 영등포교도소 자매반 교리법회 등이 소개된다. 특히 한 재소자의 부탁으로 경남 고성에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아들과 노모를 두 스님이 찾아가 위로하는 것과 백내장을 앓고 있는 재소자를 수술시켜 광명을 찾게 해주는 장면 등은 시청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운교 건축원리 소개

EBS는 15일 오후 5시20분부터 5시40분까지 20분간 우리나라 아치형 다리로서 대표적인 청운교·백운교 다리의 원리를 설명해주는 '발명 Q! 원리를 찾아라, 청운교와 백운교' 편을 방송한다.

이번 프로에서는 압축과 분산을 통해 중심으로 향한 힘을 분산시키는 아치형의 원리, 무게를 제일 잘 버티게 하는 아치형의 장점 등이 모의 실험을 통해 소개된다.

여름특집 '노래가 있는…'

불교방송은 16일~19일까지 4일동안 여름특집 '노래가 있는 곳에'를 낮 12시20분부터 오후 2시까지 100분간 방송한다. 개그맨 최영준씨가 진행할 이번 특집 방송은 가요, 트롯트, 팝송, 클래식 등 여름과 바다를 주제로 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주부 신행담

인연

"실례합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나의 이웃인 미국 아저씨가 나를 보자 말을 건넸다.

"우리집에 한국 학생이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그 학생 부모가 방문했어요. 당신을 소개했더니 만나고 싶어합니다"라고 하기에 그의 뒤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K여사를 만났다. 초면이었지만 우리는 마치 오랫동안 사귀어 온 사람들처럼 자연스레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놀랍게도 그녀는 7년 전에 암수술을 받고 기적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일년 가까이 도서실에 드나들며 암에 관한 책들을 모조리 찾아 읽고 연구했다는 K여사의 집념은 존경스럽기조차 하였다. 그덕택에 수술 후 화학요법을 거부하고 스스로 암을 이긴 용감하고 지혜로운 분이었다. 그런 그녀에게는 안양 한마음 선원에 계시는 대행큰스님이라는 훌륭한 스승이 계셨다.

나는 K여사의 가족을 초대해 저녁을 접대하고 노래솜씨도 자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일요일에는 그녀와 함께 L.A. 한마음 선원을 찾아가 법회에 참석했다. 그때 그녀는 절에서 대행큰스님의 책을 사서 나의 친절에 고맙다며 선물을 했다. 미술 교수인 K여사는 귀국한 후에도 대행 큰스님의 책을 두 권 더 구해서 나에게 부쳐 주었다.

왜 나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으며 또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나는 이처럼 사람 속에서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것일까? 막다른 골목에 서서 갈 곳을 모를 때는 죽고 싶었었는데…. 젊었을 때 늘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에게 묻곤 했었다. 살아가면서 더디게 얻어지는 해답들은 시원치가 않았는데 나는 큰스님의 책 속에서 시원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 · 문병성

부처님께 복을 빌지말고 내마음속 부처님 믿으세요

자업자득 이치 깨달은 뒤 선행의 씨뿌리며 살기로

대행스님께서는 부처님께 이기적인 복을 빌지 말고 내 마음 속 부처님을 바로 알고 믿어서 실천하라고 말씀하신다. 온 우주 법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법이니 이 우주의 자연과 내가 하나라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생활 하나 하나가 모두 법이니 마음도리를 알아서 깨우쳐 가는 길이 바로 마음을 닦아가는 수행이라고 일러 주신다.

언젠가 나도 여러 가지 일상의 잡다한 일들을 마음 속에 움켜쥐고 마침내 위장병으로까지 몰고 간 어리석은 경험이 있었다.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는 신경성 위궤양이라는 사실에 나는 깜짝 놀랐다. 당장 쓰레기통 속으로 약병을 던져 버렸다. 내 마음 하나 운전을 못하는 주제에 인생 수십년을 조절이나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체투지를 하며 나를 낮춰 평등의 도리를 익히는 훈련(?)에 들어갔다. 저 아주 작은 미물까지도 나의 처지와 같다는 겸손함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처음에는 머리가 띵하고 무거웠지만 날이 갈수록 마음처럼 몸도 가벼워졌다.

아침에 눈을 뜨며 숨쉬고 있다는 기쁨에 감사하고 창 밖 햇살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니 저절로 두 손은 내 가슴 위에 모아지며 이 우주 법계의 모든 부처님께 기도드릴 수가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나의 밝은 웃음과 맑은 마음은 반사경에 다시 튀는 따스한 햇살이 되고 인연이 되어 함께 어우러지는 행복을 만들어 주고 있었다.

어느 학자는 건강을 위해 매일 하하 웃는 연습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래, 나도 스스로 착한 마음의 씨를 뿌리는 연습을 해야겠다. 이 순간 후의 미래와 내생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얻을 때는 누군가 잃었기 때문에 주고 받는 이치가 결국 같다는 것을 살아오면서 배우지 않았는가. 자업자득의 이치를 깨달으니 어서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심에서 벗어나리라.

나는 스승이 된 책들을 보내준 K여사와의 인연에 감사를 드린다.

최미자〈미국 샌디에고〉

요즘 다들 어렵습니다. IMF로 실직을 당한 고통과 좌절을 신심으로 이겨낸 'IMF 극복 수행담' 원고를 모집합니다. 채택된 분께는 신문게재와 함께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원고매수: 30매 내외 · 전화: (02)722-4162 · 팩스:(02)737-0698

출 판

본 지면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꾸준히 활동하고 계신 출판및 관련업체의 지원을 위해 마련된 면입니다.

일정기간 계약된 지면은 해당사에서 자율적으로 자사홍보, 출판광고,신간안내등으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규격 및 단가 가로 9cm×세로 7cm

이 용 문 의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 (02)737-8881(代), (02)732-1522(直) F. (02)737-0697

알기 쉬운 문답식

관상 수상학 강의

딱한번 보고 사람을 알수있는 성공 비지니스의 처세술과 운명학

哲學博士 曺誠佑 /신국판/정가15,000원

상(相)을 보는법이란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생김새의 미추(美醜)의 마음씨의 선악(善惡)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부귀 빈천의 공격. 그리고 운세상의 길흉을 일굴의 생김새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추리하는 원리를 논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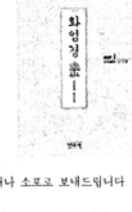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4 광성B/D T.02)921-8434 F.02)929-3470

無北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

불교 최고의 경전 화엄경!

5천여 불자가 이미 한글 화엄경을 모셨습니다!



무비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의 특징

❶ 80권本 화엄경(전40품)의 완역판
❷ 모든 불자들이 읽고 독송하기 좋은 새 한글 번역
❸ 중국 天童山판 80권本 화엄경 원문 수록
❹ 화엄경의 이해를 알기 쉽게 풀이한 華嚴小辭典 발간
❺ 상세한 단어 구문과 소제목을 첨부하여 내용 파악이 용이함
❻ 전 12권 160,000원(각종 카드로도 구입 가능)신청 즉시 택배나 소포로 보내드립니다

민족사 서울 종로구 청진동 208-1 전화 (02)732-2403~4, 722-7679

상하출판 TEL 273-4451~2 FAX 273-4450

禪

선은 선에 대해 논하지 않는다.

선은 진국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당신을 진국으로 인도한다.

송대 임제종 원오스님 운문계의 선사인 설두스님의 송고집에 평과 해설을 붙여만든 (벽암록)은 종문 제일시라 불리며 선사의 왕좌를 차지한다. 성철스님께서 "벽암록을 읽으면 모든 암흑암이가 딱 끊어진다"고 격찬한 선사의 백미이다.

오스타르크니의 강의 · 유원발음집, 값 9,000원

살아있는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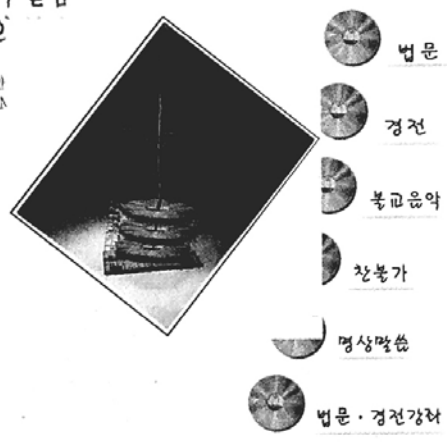
松江企劃

불교음반유통

음반제작/EVENT기획

내면의 울림 진리의

송강기획만 불교의 A



법문

경전

불교음악

찬불가

명상말씀

법문 · 경전강해

서울 성북구 성북동 184-37 3층

TEL: (02)745-6015

FAx: (02)745-6017

송강기획은 부처님의 법음을 음반으로 보급하는데 신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寺刹文化硏究院

전통사찰총서

1 · 2 강원도 I · 2
3 경기도 I
4 서울의 전통사찰
5 인천,경기도의 전통사찰 II
6 전남의 전통사찰 I
7 광주,전남의 전통사찰 II
8 · 9 전북의 전통사찰 I · II
10 · 11 충북의 전통사찰 I · II(근간)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10-1 요진오피스텔 710호 전화 (02)396-5318 팩스 (02)394-8728

佛名辭典

우리나라 최초의 불명사전

1,420개의 불명해설

(거사불명 700개, 보살불명 720개)

각 불명이 갖고 있는 뜻을 다양하고 자세하게 해설했다 아울러 불교의 여러 가지 경전 구절을 곁들여 수록하여 자칫 불명만 설명되어 식상하기 쉬운 사전식의 체제에 다양함을 가미했다

● 수계식에 대한 설명 수록

광신도를 위한 계(戒)를 받는 의식의 순서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고성훈 엮음 신국판 양장/319쪽/값20,000원

한국사찰음식

명산고찰의 사찰음식을 대중건강식으로

신사의 솔향 가득한 유명사찰음식 총망라

유서깊은 산사에는 독특하고 유명한 사찰음식이 전래되 내리오는 법 · 송광사 · 봉인사 · 지리사 국사 · 해남대흥사 · 도사 신흥사 · 상원사 등의 방로만 전해 온던 유명사찰음식 220여가지를 체계적으로 분류 그 요리법과 생생한 컬러사진 수록

김연식 지음 4×6변형 반양장/156쪽/값 13,000원

우리출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8 전화 (02)313-5047/5050 팩스 (02)393-9696

염불의 사상, 역사, 실천적 측면을 이론적으로 규명한 한국 최초의 책!

염불의 원류와 전개사

말법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맞는 수행법은 과연 무엇인가!

가장 행하기 쉽고 그 공덕 또한 가장 수승한 수행법!

이 책은 다양한 염불의 종류와 이들이 생기된 근원, 발전과정 그리고 각각의 공덕들에 대해 수많은 경전과 논사들의 주장을 토대로 고찰하고 있다

이태원 저/신국판 양장/726쪽/값25,000원

윤주사 서울 종로구 청진동 6 전화:02)720-9372~3 팩스:02)723-0646

불교출판 - 蓮池門

불교출판 "蓮池門"은 생사해탈의 묘법인 정토의 가르침을 펴내기 위해 염불선 수련도량 대원사에서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토문고 1

장 · 수 · 멸 · 죄 · 경

-태아원 천도공양법-

지옥의 어머니 지장보살을 통하여 부모의 죄업을 벗고 어린영혼들을 정토에 태어나게 하는 자비의 가르침

현장역음/값4,000원

광토문고 3

죽음을 준비합시다

-중음신 제도법-

죽음과 환생의 세계를 비르게 새워 삶의 깊을 깨닫게 하는 소중한 내용이 책장피마다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 죽음과 환생사이의 영혼을 스스로 제도하는 법교와 정토의 핵심되는 가르침

권탁인 역음/값4,000원

蓮池門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전화:0694)52-1755

불교학 개론, 종교사의 강의록!

명실상부한 종교 입문서!

최정인지음/신국판/454쪽 값 10,000원

어느 종교든 그 종교 나름대로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것은 존중되어 마땅하다 하지만 종교전시장을 방불케하는 우리나라의 현 종교상황을 살펴볼 때 종교적 가치관의 혼돈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일어왔다 이러한 사회적 악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올바른 종교를 선택하는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 이 책을 펴내게 된 목적이다

이 책의 저자인 최정인 스님은 일본 애지학원대 불교과 석 · 박사를 마치고 현재 동국대의 종앙승가대에 출강하고 있다 이 원고는 그동안 교단과 법회에서 불교학 개론과 종교사를 강의한 것을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도서출판 이레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가 177번지 대형빌딩201호 전화 02)730-8976 전송 02)723-6801

이레 온 하늘과 땅사이에 인간을 밝게하여 준다는 뜻의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입니다.

꿈에서 나는 이와같이 들었다 I II III

현대의 지식인들은 무식해질 필요가 있다.

성내경 지음/각권15,000원

무식해지고 무식해져서
무식이라는 낱말조차 붙일 수 없을때
지리가 드러나리라.
스스로 깨우쳐졌다는 생각을 버려라.
내가 알아야 하겠다는 것은
유치원 수준도 안된다.

이화여대 성내경 교수의 하룻밤 꿈이야기전3권

1권 길은 길이 아니고 도는 도가 아니다
2권 걸림없고 위없는 길을 찾이서
3권 해와 달이 빛나면 어둠은 없다

도서출판 중명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82 태수빌딩 201호 전화 636-6873 팩스 636-6874

외제의 새 책

"귀신의 병은 100% 낫는다."

구천에서 떠도는 영혼들을 기를 통해 저승길로 인도하는 연화심 보살의 영능력 세계!

뚜렷한 병명 없이 아픈 사람들이나 신이 내렸다고 하는 사람들을 손하나 대지 않고 치유하는 신통력을 지닌 연화심 보살

"기를 모으면 영혼을 부를 수가 있는데 빛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현생에서 떠도는 지은 업의 크고 작음에 따라 색이 다르게 나타나죠. 저승에 가지 못하고 떠도는 혼들을 사후세계로 보내주면 혼령이 붙어서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씻은 듯이 낫게 됩니다."

영혼을 천도하는 연화심

지천기 지음

신국판 240쪽 /값6,000원

삶의 지혜를 밝혀주는 일타큰스님의 불교책

●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신국판/5,000원
큰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을 한권으로 엮었다.

● 생활 속의 기도법 문고판/160면/35,00원
실생활에서의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기도방법 등을 자상한 법문과 함께 예화(例話)를 실어 알기 쉽게 엮었다

● 기 도 신국판/240면/5,000원
일타큰스님 자신과 도반, 제자, 신도들의 기도성취 체험담 모음집

도서출판 호림 전화:02)587-6612/팩스:02)586-9078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전화를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祖師西來意 달마도 보급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다.
어떤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이에 선사는 '뜰앞의 잣나무니라'라고 답했습니다.
이 공안을 음미합시다!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가 9년 면벽을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 화두도 음미합시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한 방편으로 선불교가 있습니다.
달마대사가 바로 그 선불교의 창시자입니다.
화엄선사 달마도를 항상 가까이 두고 공부한 공력으로 심신의 건강을 가꾸시고 지혜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 나무 석가모니불 -

제작자 합장

(전 면)

(후 면)

제품명 화엄선사 달마도

재 질 순금 99.9% 크 기 5.2cm × 7cm 가 격 ₩15,000

특 징 순금을 최대한 얇게 펴아 주미니속, 지갑속에 넣어다닐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부다피아 쇼핑몰 : TEL.02)732-1522/737-8881 FAX.02)737-0697